

● **충무원장 스님의 '애프터서비스'**

초심은 결국 하심이고 공심 약자 향한 오랜 관심 '주목'

‘용산참사’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관심이 각별하다. 수감에 있는 절거민들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청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영지금을 넣어주고, 유가족들을 위문해 도움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관심의 ‘크기’보다 ‘깊이’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인연을 맺었다. 취임 직후 첫 번째 대외일정이었다.

다수의 절거민이 죽었던 경찰도 죽었다. 이념적 진영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집단의 대립조차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다. ‘악당’에 물리기가 쉬웠고, 집행부 스님들조차 만류하는 길이었다. 당시 조국한 해를 장담한 국무총리는 지금 그 자리에 없다. 이웃종교 인사들도 이제는 선봉리 나서지 않는다. 주요 언론에게 급작스러웠던 등극한 ‘용산’은 탐나는 언어지만, 막상 ‘참사’가 덧붙으면 금기어가 된다. ‘애프터서비스’가 연상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행보는 그래서 이채롭다. 한때 나라 뒤흔든 비극이자 이슬이 실린 수 있도록 각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용산참사의 원인은 세입자의 권리와 절거민에 대한 사전대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크다”며

먼저 “용산참사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에는커녕 관련자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등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청원서를 낸 배경을

한때 나라 뒤흔든 비극이자 이슬이 실린 ‘용산참사’ ...

지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거나 애써 피하는 그 자리에 홀로 다시 선 셈 ... 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불교인의 소토 ‘모색’ 국민의 행복과 평화 ...

‘진정성’ 되돌아보는 계기

설명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조속히 사면되어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용산참사의 원인은 세입자의 권리와 절거민에 대한 사전대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크다”며

정부에 대한 경계도 담담하게 담았다. “정부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구속자 대부분은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며 합리적인 정상화작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생존이 버거운 가난한 서민들”이라며 “인기 후반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 주기를 청원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절거민들은 보잘 것 없는 몸으로 용산의 보잘 것 없는 과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정치성향과 개인적 국정을 떠나 사회적 약자임은 분명하다. 청원서에는 불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전지하진지 때를 써하지 않은 어법으로 표현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애민(愛民)과 공생(共生)에 대한 수사의 화려함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정국상황에도, ‘반(反) 이명박이 곧 정의’라며 되는데로 말하고 거칠게 움직이는 세간의 기류에도 결이 다르다.

그리고 ‘스님이 주신 편지와 영지금을 잘 받았다’고 난쟁이 꼭 안부를 전하러 왔다. “늘 맑고 깨끗한 사람들 편에 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는 유가족들의 화답에서 진짜 소통이 꿈틀거렸다. 초심(初心)은 결국 하심(下心)이고 공심(公心)임을 새삼 일깨웠다.

정영섭 기자 tuel@bulgyo.com



충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해 구속자 가족 및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신재호 기자 air51@bulgyo.com

“빠른 시일 내 특별사면 되도록 힘쓰겠다”

충무원장 자승스님
 용산참사 구속자 가족
 유가족 위로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용산참사 구속자 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구속자 가족 및 유가족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구속자 위문이 빠른 시일 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립의 상징인 용산문제가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지도자 모임 등에서 함께 노력해 정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회주공 공동대표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종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 씨와 부인 정영신 씨,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천주석 씨의 부인 김영희 씨, 고 윤용현 씨의 부인 유영숙 씨, 고 양희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 박래균 용산참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스님께서 가장 먼저 탄원서를 내주시는 등 조계종 차원에서 늘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오는 3월 1일에 유가족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영 기자 hong2@bulgyo.com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불교신문이 제1인력가 및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1960년 창간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신문에서 불교인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 부문
 1. (편집국) 인턴 기자: 2명
 2. (업무국) 인턴 사원: 1명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접수기간
 2012년 2월 11일(수)~2월 25일(수)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도봉본에 한함)

◇ 자격조건
 1. 대학교 후학생, 졸업생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2. 만 20세 이하
 3. 학업경력(요청보통 코보일 경력) 기간 6개월 미만자
 4. 노동부 인턴제 사업 근무경력자 제외

◇ 제출서류 및 접수처 문의
 서울 종로구 권자동 13번지 건평회관 5층 불교신문사 www.bulgyo.com
 업무총괄팀 ☎ (02-730-4488)

불교신문사

지면안내

‘차별없는 사랑’로 돌아오다 3면

10·27특별집행법원 본지 사정상 5면

서울 전동사 동명스님과 외국인재단 팀블리의 ‘대인’ ... 7면

법정스님 2주기 법회
17일 길상사서 봉행

무소유를 실천하며 소박한 삶을 살다가 지난 2010년 임철한 고(故) 법정스님을 추모하는 법회가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운스님)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경내 설법전에서 고(故)법정스님의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추모법회에는 문도대표 덕조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길상사 자문위원, 맑고 향기롭게 일원, 길상사 수행단체장 등

이 참석할 예정이며, 헌화와 헌다에 이어 법정스님을 추모하는 영상 상영, 음성공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립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의 추모 법문도 예정돼 있다.

길상사는 “법정스님의 2주기는 생전 스님의 뜻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된다”며 “무소유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의 지혜를 가지라고 생애를 통해 가르치셨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일은 여전 이 시대의 고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엄대규 기자 che11@bulgyo.com

‘성보, 빛으로 기록하다’
사진기자 신재호,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신문 사진기자가 임시하여 산문을 10년간 다듬어, 돌아오는 길에 남았던 사진에 대한 묵마를 잊었습니다. 이만 대령연재를 시작하며 ‘여객에 매는 카메라 가방 하나’의 사진기자가 모습을 잠시 놓아드립니다. 사진장비를 바리바리 짚어지고 사진을 같이 전

공한 20년지기와 산문을 들어드립니다. 이 길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설렘이 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성보가 가장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시간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조명들을 활용해 피사체의 일체감과 생명력을 끌어 넣는 작업이 더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사체와 주변의 다양한 노출이 미적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사진기자로써 중시하는 기동성과 다른 취재일정을 고려한 타임스케줄과도 거리가 멉니다. 저로서도 낯선 사진작업입니다. 아쉽게도 시작하는 이번 기획연재에 불교신문 독자들에게의 격려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 **관련기사 7면**

신재호 기자 air51@bulgyo.co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 산사순례

선묵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떠나는 길!
 9년, 대장정의 소회를 스님이 직접 남긴 생생한 기록!

108 산사순례

종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산사순례! 9년, 대장정의 소회를 스님이 직접 남긴 생생한 기록!